

서울대 A+, 그들의 노하우: 맥락적 필기

이해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지원부 연구조교수

홍영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지원부 연구원

1. 서론

역사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주요 매개체는 말과 글이었다. 말과 글이 아닌 표정이나 태도, 무언의 의미 속에서도 사람들은 가르침을 얻지만, 대부분의 가르침과 배움의 소통방식은 말과 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어떻게 더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말과 글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의 속성은 글의 속성과 달라서 말은 말의 속성으로, 글은 글의 속성으로 표현되어야 적절하다. 말의 속성은 이해하기 쉽고 글의 속성은 정리하기 쉽다. 그런데 글의 속성이 강한 글이 말로 표현되는 경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말의 속성이 강한 말이 글로 표현되면 군더더기가 많고 산만하며 깔끔하게 정리된 글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본 연구에서는 말과 글의 속성을 면밀하게 고찰한 후, 이해를 위해서는 말성을, 정리를 위해서는 글성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효과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 근거로 수용적 학습을 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고학점자들의 노트필기 전략을 분석하여 이들이 교재의 글과 가르치는 이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여 기억해내는지에 대한 과정을 해부해보았다.

2. 가르침에서의 말성과 글성

전통적인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말과 글이다. 물론 말이 먼저 생겼을 것이고, 글은 후에 텍스트 테크놀로지와 인쇄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사고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발달해 왔다.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 말은 있어도 글이

없는 종족이 많이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물의 영장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한 주요 원인이 직립보행으로 인한 도구의 사용과 이를 전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말의 사용이라면, 글의 발명은 생존 문제가 해결된 이후 인류만이 가지게 된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러한 말과 글의 속성에 대하여 Ong(1982)의 저서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는 주목할 만한 역작이다. 그는 이 저서를 통해 말성(orality)과 글성(literacy)¹⁾의 이론적 개념 틀을 제시하고,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에 구술로써만 의사소통하던 시대의 말성을 1차적 말성(primary orality)으로,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인류가 가지게 된 사고방식이나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친 글의 속성을 글성(literacy)으로 개념화하였다. 이후로 말과 글의 속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오고 있다.

말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소통한다. 이러한 발생의 환경적 속성으로 인해, ‘말’이라는 현상 자체에 여러 가지 속성, 즉 말성(orality)이 태생한다. 감정이 입적이고, 동시적이며, 부연적이고, 억양과 방언 등과 같은 변형이 많고,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따라서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정리보다는 이해를 추구한다. 글은 저자와 독자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소통한다. 이러한 태생적 속성은 ‘글’의 여러 속성, 글성(literacy)을 야기한다. 우선 저자와 독자가 감정이입적이라기보다는 감정 독립적이고,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며, 변형보다는 통일성을 위해 문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해보다는 정리를 위해, 부연적이기보다는 간결함을 추구하고, 말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자체가 화자의 의미를 매개하고 전달하고 있는 반면에, 글은 적어지는 글과 그 글을 적는 인쇄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그 규정이나 문법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발달해 왔다.

가르치고 배우는 장면에서 말성은 동시적, 감정이입적, 반복적, 구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리보다는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글성은 비동시적, 관조적, 축약적, 추상적, 탈맥락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보다는 배운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글성의 대표적인 예는 교과서이다. 이러한 교재는 글로 쓰였으며 학생들에게 구체적 맥락을 탈피한 보편적인 지식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교재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 즉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해왔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말로 설명함으로써 가르침을 행해온 역할이 늘 있어왔다.

교재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말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를 기록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그리고 말과 달리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 보존된다는 속성으로 인하

1) Ong의 1982년 저서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가 국내에는 “구술 문화와 문자문화”로 번역되어 소개되었고(이기우, 2000), 혹은 구술성과 문자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orality와 literacy를 말과 글이 영향을 미친 사고와 문화적 측면보다는 말과 글 자체의 속성을 주로 논의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번역을 택하지 않았다. 또한 ‘문자성’은 텍스트의 성질에 한정되는 느낌이 강해서, 텍스트로 구성된 ‘글’의 전반적인 속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글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술 말의 속성은 ‘말성’으로

여, 권위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권위는 가르치는 이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어 왔다. 중세시대에는 경전을 독점하였던 성직자에게 주어졌고, 대학이 시작된 이후로 교수들에게 지식의 권위가 부여되어 왔다. 이들이 말로써 풀어 설명해주고서야 배우는 이들에게 지식이 전달될 수 있었다. 고대로부터 교육의 원형은 강의라고 할 수 있다. 강의는 말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문어체로서의 글이 아닌 구술이다. 구술은 가르치고 배우는 장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직접 강연회를 연다고 하면, 책을 읽었을 때의 느낌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강연회에 참석을 할 것이다. 이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저자가 풀어내는 이야기이며 이 속에 말성이 있다. 그의 말 속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복적 어구의 사용,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여 동시적, 구체적, 맥락적이며 캐주얼한 언어를 구사한다.

3. 배움에서의 말성과 글성: 성적 우수자의 필기전략 분석

가르칠 때는 글성이 강한 텍스트로서의 교재를 말성이 강한 강의로 옮기는데, 이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교사의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교사의 말성으로서의 강의를 학생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 학생은 어떻게 해석하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대표적인 예는 교사의 강의를 잘 이해하여 받아들여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성적 우수자를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습자 45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교수의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트필기 전략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해를 촉진하는 말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트필기: 맥락적 필기

성적 우수자들은 우선적으로 교수의 강의를 노트에 모두 받아 적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노트필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요약, 조직화, 하이라이트 등을 언급하는 데에 반해, 본 연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성적 우수자들이 수업내용의 전부를 기록하려 한다고 하였다. 어떤 학생은 교수의 기침, 농담까지도 기록한다고 하였고, 어떤 경우는 녹음기를 사용하여 보완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냥 무식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필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

씀을 안 놓치고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하시는 말씀을 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봐야 이제 한 번에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처음이랑 끝에 만 했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또 다시 제가 다 유추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필기는 힘들어도 열심히 해 놓으면 나중에 한 번에 이해도 더 잘 되고… (자연대 김00)”

“그냥 일단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장단위로 좀 끊어서 적으려는 편이 강하구요 어떤 학우들은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언어로 다시 풀어낸 걸로 적으시는 경우도 있던데 근데 전 그렇게 하기에는 수업시간이 너무 짧아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속기하듯이 그렇게 적는 편이에요, 대학교에서는 주교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트 전면에다가 교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대 임00)”

이들이 수업내용의 전부를 기록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이해’를 증진시키며 당장의 효과에서 나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수업 상황에서의 이해와 동일한 수준의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맥락’,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생님이 농담하신 것까지 적으면 그 때 상황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결국 맥락이나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말을 다 적어요, 도식화 하는 게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회대 이00)”

이처럼 성적 우수자들은 공통적으로 노트필기에 수업상황의 모든 맥락을 담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가 설명하는 모든 내용, 농담, 다른 학생의 질문, 토론 내용과 같은 맥락을 기본적으로 모두 기록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업에 고도로 집중하며 수업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듯하다.

수업 상황에는 교수가 말한 것과 학생이 듣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늘 발생하게 된다. 학생은 자기가 교수가 말한 것을 적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수가 말했다고 생각한 자신의 이해를 적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교수의 말과 사실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오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몇몇 학습자들은 전사한 노트 필기를 며칠 지나서

보면 “당시에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공대 유OO)”, “못 보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된다(사범대 강OO)” 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2) 2차 필기: 말성에서 글성으로

성적 우수자들은 1차 필기를 통해 충분히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는 2차 필기를 통해 정리하고 암기하는 단계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1차 필기와 2차 필기는 말성과 글성의 속성이 잘 반영된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성적 우수자들이 1차적으로 모든 것을 필기하려고 하는 것은 말성의 속성으로서 이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2차적으로 구조화하고 요약하는 것은 글성의 속성으로서 정리를 통한 암기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업 시간에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옮겨 적어서 모든 내용이 포함된 노트는 추후 구조화, 체계화, 요약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보충자료, 참고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되기도 하여 하나의 완전한 학습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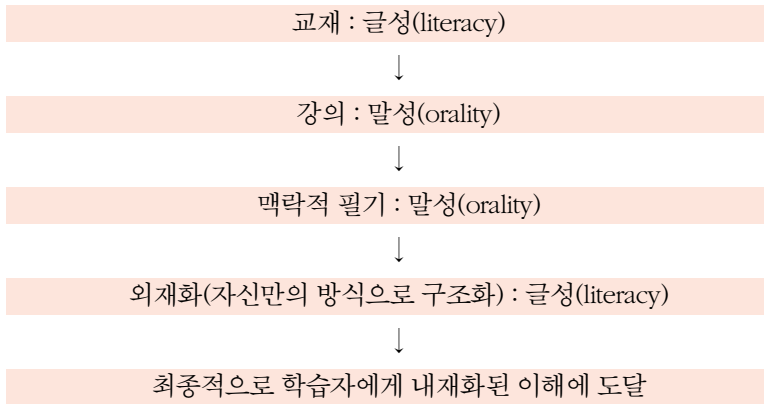
“필기자체가 지난 시간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걸 보면 강의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필기를 읽어보면서 머릿속에서 수업을 몇 번 다시 재현해보고 수업내용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구조화하고 체계를 잡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범대 강OO)”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성적 우수자들의 노트필기 특성으로서의 ‘가르치는 이의 수업내용을 모두 필기한다’는 경향이 이들만의 특성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재학생 10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점이 높을수록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말성과 글성의 개념 틀에 비추어본 학습의 과정

학습의 과정은 지식이 내면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Lee & Rha, 2009), 이러한 과정을 지금까지의 논의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겠다. 교재는 글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르치는 이는 이것을 말성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맥락적 필기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가르치는 이의 말성을 최대한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다음, 이를 바탕

으로 말성을 글성으로 옮긴다. 즉, 구조화, 시각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리와 요약을 하는데, 이것은 지식의 외재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내면화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겠다(〈그림 1〉참조).



〈그림 1〉 성적 우수자들의 내면화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본 연구는 글성과 말성의 개념 틀에 기반하여 교수-학습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글성으로서의 교재에서부터 지식이 어떻게 이해하기 쉬운 말성으로 풀어지며, 또한 학생들은 그 말성을 다시 글성으로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말성으로 옮기고 나서 글성으로 정리하는가 하는 것을 실제 성적 우수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확인하였다.

5. 가르침과 배움에의 시사점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함의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르치는 이는 글성이 반영된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방식을 피하고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즉 말성을 최대한 살리는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완전한 이해를 위해 맥락적 노트필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노트필기할 때 특히 강의 내용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맥락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맥락적 필기 전략은 학습 내용의 사전 이해도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맥락적 필기를 한 후에 정리와 암기를 위한 구조화, 시각화, 요약 등의 2차적 필기를 학습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다.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수용적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글성화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받아들여 이해한 지식을 외재화하는 것이고, 외재화하는 것이 곧 제대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말성은 이해를 도모하며, 글성은 정리를 추구한다. 또한 선행되는 완전한 이해는 이후의 암기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본 연구는 모든 학습 영역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 사회적 역량 등의 다른 학습 영역에서까지 전사가 효과적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르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최대한 가르치는 이의 의도대로 흡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용적 학습의 경우에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말성과 글성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학습 유형의 기본이 말과 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다른 유형의 학습 영역에서도 말성과 글성의 개념 틀을 통한 현상 해석이 추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이혜정, 최효선 (2010).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비언어 텍스트에 대한 개념적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11(4), 167-188.
- Lee, H. J. & Rha, I (2009). Influence of 'Structure' and 'Interaction' on Student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Web-Based Distance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and Society*, 12(4), 372-382.
- Ong, W. J. (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 New York: Methuen & Co. Ltd.